2015년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차 례

머 리 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2015 년은 뜻깊은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로 수놓아진 장엄한 투쟁의 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였습니다.》

2015 년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럽고 의의깊은 혁명적경사로 빛내였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된 당창건 일흔돐경축행사를 통하여 조선은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양양한 전도를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특히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은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며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를 창조하였으며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미풍들을 발휘하였다.

2015 년에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가, 강철의 령장,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도서 《2015 년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는 2015 년에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수호를 위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을 《로동신문》에 실린 자료에 기초하여 서술하였다.

1. 주체조선의 천만년사를 확고히 담보해주시여

1) 새해에 인민에게 하신 호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시는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에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시고나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 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야 합니다.》

이해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첫째로 사회주의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정치사상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혁명무력건설과 국방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으로 이해에 조선인민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하며 온 나라에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둘째로 이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를 전체 조선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로 제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한 조국통일과업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셋째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적립장에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혁명적원칙과 자주적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뉴대와 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

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비약과 혁신의 지름길을 밝힌 강령적지침이며 승리의 포성이였다.

2)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2월 1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혁명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열린 이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과 교훈들을 총화하고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지난 3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 장군님의 교시는 혁명의 교과서이며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새겨안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충직한 전사, 제자답게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오직 장군님의 뜻대로, 장군님식대로 해나감으로써 이 력사적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가운데서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유훈부터 먼저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부강조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가 있고 당의 부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산악같이 일떠선 천만군민의 혁명적열정과 위대한 힘이 있는한 우리에게는 못해낼 일이 없으며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오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지만 조선혁명은 우리 당이 정한 승리의 리정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수령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어떻게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두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3) 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로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월 4일 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조선로동당이 장장 70성상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여 주체혁명위업을 향도해나가는 력사적인 투쟁속에서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무엇보다먼저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뜻대로 당건설과 당활동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사상과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당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당의 령도밑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의 사상중시, 군사중시, 과학중시로선을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실현할데 대하여서와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관철하여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의 마지막부분에서 오늘 우리앞에는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헤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치며 백승의 력사만을 아로새겨갈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성스러운 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라

고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이해 10 월 4 일에 발표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70 년력사와 투쟁경험, 업적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는 백과전서적문헌이며 조선로동당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명시한 강령적지침이였다.

2. 정치사상강국의 불패의 위용 과시

1)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1) 선군총대의 고향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2 월 어느날 훌륭히 개건된 평천혁명사적지를 현지지도하시였다.

평천혁명사적지는 해방된 조국땅에 첫 병기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군수공업의 초행길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아로새겨져있는 뜻깊은 곳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천혁명사적지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1945 년 10 월 평천벌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에 병기공장터전을 잡아주시였다고 하시면서 그때로부터 어느덧 장장 70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추억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관단총성능시험장을 비롯한 사적지의 요소요소를 력사주의적원칙에 맞게 원상그대로 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교양마당도 번듯하며 원림록화사업도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로고가 있어 우리가 오늘날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현대적무기도 척척 만들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빈터우에서 자립적국방공업의 기초를 마련해주신 우리 수령님은 만고의 명장, 만고의 명인, 만고의 대성인이시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야 하는 건국의 초행길에서 우리

식의 국방공업창설을 구상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애국심을 지닌 조선로동계급에 대한 굳은 믿음이 기둥처럼 서있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로동계급은 자그마한 병기공장에서 연길폭탄정신을 발휘하여 원쑤격멸의 무기들을 생산할수 있었으며 오늘은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억세게 자라났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속에서 만들어진 한자루한자루의 총이 오늘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는 총대숲으로 무성해졌으며 우리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울리신 력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수있었다고 하시면서 평천혁명사적지는 선군총대의 고향이나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천혁명사적지를 돌아보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혁명을 해왔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자립적국방공업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것이 엄혹하였던 해방후에 우리 손으로 기관단총을 만들어낸 그때 그 정신으로 투쟁한다면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쑤도 넘겨다보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로 더욱 억세게 다져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는 우리의 군수공업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2) 영광스러운 승리전통을 만천하에 과시하도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제4차 전국로병대회가 7월 2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에서 열정에 넘치신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대회참가자들은 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고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도록 군대와인민을 고무격려해주시였으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맥박치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조국수호, 조국번영의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 필승불패의 보검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크나큰 감격과 격정속에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반제혁명전쟁에서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로병들의 불굴의 정신과 기상, 투쟁본때를 계승하여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위대한 승리와 위훈의 년대로 빛내여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7월 말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병들은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고 오늘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짓부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의 날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전우들을 60여년세월 자나깨나 마음속으로 그리워 잊지 못해한 로병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시여 렬사묘앞에서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랑의 기념사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전체 로병들이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결사수호의 맥동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

명선배, 교양자로서 후대들에게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넘겨주어 그들을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3) 제 4 차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에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이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몸소 발기하신 40 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몸소 발기하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제 4 차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를 소집할것을 발기하시고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으며 11 월 어느날 대회에 강령적인 서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를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서한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구현해오신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로선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백전백승의 기치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로선이라고 하시면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서한에서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조직들을 믿고 직접 맡겨주신 전투과업이라고 하시면서 각급 당조직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실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된 제 4 차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전면에 나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보다 활력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주체적대중운동사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새로운 력사적리정표로 된다.

2) 일심단결의 불패성,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 과시

(1) 자랑스럽고 의의깊은 혁명적경사-10 월의 대축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10 월 10 일 조선로동당창건 70 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 돐경축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10 월 10 일은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진정한 혁명의 전위대, 전투적참모부의 탄생을 경축하는 의의깊은 혁명적명절이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성대한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우리 당이 장장 70 년간 군대와 인민을 령도하여 억척같이 다져온 무진막강한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줄것이며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광명한 미래에로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로정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연설의 구절구절마다에는 장장 70 년간 당을 운명의 전부로 믿고 따

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꽉 차넘쳤다.

그이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열병대원들과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당, 조선로동당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조국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으로 빛을 뿌리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먼저 열병행진이 개시되였다.

발걸음드높이 광장을 누벼나가는 열병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무적의 총대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보위해온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이어 백두의 대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수해갈 자주적근위병들의 필승의 기상이 어려있었다.

열병식에 이어 평양시군중시위가 시작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진두에 모시고 혁명적당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하여온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의 70 년사를 긍지높이 펼쳐보이며 당의 령도따라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줄기차게 전진해나갈 철석의 의지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과 업적으로 빛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기치따라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음을 과시하며 주석단앞을 지나가는 시위참가자들의 충천한 기세는 더욱 고조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 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폭풍쳐 나아갈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백절불굴의 전투적기상을 만천하에 힘

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청년전위들의 홰불행진 《위대한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가 10 일 저녁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가는 조선청년들의 긍지높은 모습, 청년강국의 높은 존엄을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청년전위들의 영웅적기상과 넋이 혁명의 홰불봉마다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청년대군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천지를 진감하고 젊음으로 약동하는 청년강국의 위용이 대오마다에 용솟음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혈의 청년전위들에게 손을 들어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시며 조선로동당창건 70 돐을 조선로동당과 청년운동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정녕 10 월의 경축광장에 펼쳐진 격동적인 화폭들은 일심단결과 총대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투쟁하는 조선로동당과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보여주었다.

(2)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7 월 19 일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7호구 제102호분구, 서성구역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2호구선거장에 나가시여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 107 호구 제 102 호분구 위원장으로부터 선거표들을 받으시고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 역전대대 운전수와 서성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2 가공직장 직장장에게 투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의원후보자들을 만나시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을 지니고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헌신해온 그들의 공로를 평가해주시면서 앞으로도 인민의 대표답게 사회주의 내 나라를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숭고한 자각과 본분을 다 해나가라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선거에 참가한 크나큰 영광을 지닌 선거자들은 존엄높고 강위력한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인민의 혁명주권을 굳건히 다지며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3)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① 청년강국의 상징-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4 월 어느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돌격대지휘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오느라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했다고, 발전소건설을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외국방문을 마치신 길로 불편하신 몸이였지만 이런 산세험한 곳까지 찾아오시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저려온다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걸을수록 정말로 우리 장군님 같으신분은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갈마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산이고 사랑의 젖줄기이며 조국의 만년재부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자는것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발전소건설장을 돌아보니 신심이 생긴다고, 이런 험한 곳에서, 상상할수 없는 혹한속에서 거창한 대상건설을 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대상이면서도 우리 당력사에 청년들이 새기는 또 하나의 빛나는 자욱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우리 당의 70 년 력사는 청년중시의 력사,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력사라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자고 하시면서 완공의 기쁨속에 이곳에서 청춘들의 대합창공연을 진행하자고, 자신께서 꼭 보시겠다고, 그날 발전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자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9 월 어느날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용타고, 지난 4 월 자신께서 발전소건설장을 다녀간 때로부터 120 여일간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림으로써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고,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신화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높이 솟아오른 1 호발전소 언제를 여러 곳에서 보아주시고 언제우를 거니시기도 하시면서 멋있다고, 정말 웅장하다고, 미남자처럼 잘 생겼다고, 올려다보면 하늘끝에 닿은 우리 청년들의

기상을 보는것만 같고 멀리서 보면 당중앙을 옹위하여 성새, 방패를 이룬 청년대군의 모습을 보는것만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이 쌓아올린 언제이기에 그 높이를 결코 측정단위로 잴수 없다고,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언제의 높이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의 높이, 청년강국의 높이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 호발전소 언제와 물길굴도 무심히 볼수 없다고 하시면서 혹한속에서 자연과의 전쟁을 벌린 청년들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온 나라 천만군민이 뜻깊은 10 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의 포성을 높이 울려가고있던 10 월 3 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의 광란을 물리치며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한 발전소건설자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애국충정의 피와 땀, 영웅적위훈의 결정체이며 증견자인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언제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② 제 2 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온 나라 군대와 인민, 청년들의 깊은 관심속에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가 5월 어느날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청년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이 당의 부름에 언제나 앞장서 달려나가도록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를 소집할것을 발기하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대회준비과정을 일일이 관심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어느날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념사진촬영에 앞서 당과 수령에 대한 지극한 충정,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결한 의리심, 아름다운 도덕기풍을 발양하는데서 특출한 모범을 보인 10여명의 청년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소행을 하나하나 들어주시면서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미풍은 진주보석에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인생의 귀중한 청춘시절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전국의 청년미풍선구자들과 청년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과 조국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칠줄 알고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들의 소행은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나라에서만 찾아볼수 있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위용떨치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는 우리 청년들을 사회주의미풍의 창조자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청년들을 혁명적인생관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 핵심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적극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

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은 우리 식, 우리의것에 대한 애착과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시대의 훌륭한 젊은이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5 월 어느날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 보내주신 감사문은 제 2 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이 불씨가 되여 온 사회에 아름다운 기풍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그이께서는 감사문의 앞부분에서 이번에 진행된 제 2 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준비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위훈떨치고있는 조선청년들의 혁명적풍모와 기개를 만천하에 과시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청년문제해결에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고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청년들을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어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감사문에서 청년들을 굳게 믿고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은 당중앙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는데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 청년미풍선구자들을 배출하는 모범적인 단위들을 찾아가 훌륭한 청년들을 직접 만나보고 고무해주려고 한다고, 청년동맹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통채로 맡겨주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당창건 일흔돐까지 기어이 완공하여 백두대지에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재부, 청춘의 기념비를 일떠세움으로써 장군님의 유

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건설력사를 온 세계에 자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끝으로 전국의 모든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이 수백만 조선청년들의 순결하고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청년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비상히 분출시켜 당창건 일흔돐을 청년사업의 새로운 성과로 장식하며 다음해에 맞게 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청년대축전으로 훌륭히 빛내이리라는 굳은 믿음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속에 진행된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를 불씨로 하여 온 나라에 타번진 아름다운 기풍은 백두산청년강국의 혁명적풍모와 기개를 만천하에 과시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3. 인민군대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① 두번째로 찾으신 신창양어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8 월 어느날 신창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조직된 이곳 양어장에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탁우에 세상에 이름난 맛좋은 물고기료리를 다 올려주고싶은것이 소원이라고 하시며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머나먼 외국방문의 나날 연회상에 오른 철갑상어료리를 보시고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철갑상어맛을 보이게 하실 결심을 굳히시였으며 신창양어장에서 다른 물고기와 함께 철갑상어도 기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통한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신창양어장을 7 차례나 현지지도하시고 수백차의 교시를 주시면서 양어의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여주신 장군님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지개벽된 신창양어장의 구내를 걸으시면서 전경을 부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신창양어장의 환경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이 가장 정확히 구현된 양어장이라고, 마치 식물원같다고,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몰라보게 일신되였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연지리적으로나 생태환경적으로 양어하기

에 가장 리상적인 곳에 자리잡고있는 신창양어장은 생산면적은 물론 생산량에 있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대규모의 양어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신창양어장은 양어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을뿐아니라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하다고 하시면서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투쟁함으로써 날로 발전하는 우리의 양어기술척도를 보여주는 양어장, 나라의 양어를 발전시키는데서 본보기단위, 교육단위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펴주신 양어혁명의 불씨를 료원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양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창양어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나라의 양어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②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된 라선땅의 새 모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9 월 어느날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 인민애를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8 월 27 일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 문제들이 토의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중요의제로 제일먼저 토의하도록 하시였으며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를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와닥닥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라선시피해복구전투장으로 달려나온 각급 부대 장병들은 건설전투에

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착공의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0 일동안에 1 300 여세대의 살림집블로크벽체쌓기를 완전히 끝내고 콩크리트층막치기와 내외부미장작업을 진행하며건설전투성과를 확대해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휘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관철하겠다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림으로써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라선시피해복구를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말그대로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전투를 진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건설장전역에서 창조되고있는 기적과 위훈은 온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큰물피해로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자신께서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 찾아왔다고, 그런데 오늘 현지에 와서 당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결사관철하고야마는 인민군장병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인민들이 살게 될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것을 직접 보니 근심걱정이 다 사라지는것만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라선시피해복구는 전례없이 방대하고 아름찬 전투이지만 자신께서는 인민군대를 믿는다고 하시면서 이 땅우에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인민군대가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라선시 선봉지구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전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이미 살던 집보다 더 멋있고 현대적이며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자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라선시피해복구전투에서 기본대상인 살림집건설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라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건설자들이 당의 결심이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끝냄으로써 10월의 하늘가에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지역에 1 300 여세대의 단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서고 여러곳에 500 여세대의 소층, 단층살림집들이 주변풍치와 어울리게 새로 건설되였다.

라선시피해복구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TV 와 의복류, 경질유리그릇, 식료품은 물론 성냥과 위생종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활필수품을 보내주시였으며 10 월 어느날 새집들이를 앞둔 백학동을 찾으시여 인민사랑의 뜨거운 자욱을 새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이 본래집들보다 좋은가, 구들에 불이 잘 드는가, 물은 잘 나오는가를 세심히 알아보시고 모든 살림집들을 인민들이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훌륭한 보금자리로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하는 자기들에게 당에서 TV 를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을 선물로 보내준데 대하여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는데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고향집, 고향마을을 꾸리는 심정으로 큰물피해복구전투를 정말 잘했다고, 이번 전투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 도덕적풍모를 더욱 힘있게 과시하는 과정으

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제 남은것은 새집들이라고, 군인들이 인민들의 새집들이를 도와주는것을 비롯하여 마무리를 잘하고 귀대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백학동 살림집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황홀하다고, 기쁜 일이면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으며 보람이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인민들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불과 30 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선경마을이 생겨났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이는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지닌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적이라고, 자신께서는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당정책관철의 척후대인 인민군대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긍지로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라선시피해복구전투는 전례없이 방대하고 아름찬 전투였지만 자신께서는 인민군대를 굳게 믿었다고 하시면서 이 땅우에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인민군대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력사의 한페지를 또 한번 자랑스럽게 썼다고, 우리 당 투쟁력사는 군대와 인민의 애국충정의 피와 땀으로 씌여지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던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보니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새집들을 받아안게 될 인민들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을 결사관철함으로써 당에 대한 인민들의 소중한 믿음을 지켜주고 당의 권위를 보위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건설에 참가한 전체 부대들에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라선전역에서 발휘한 인민군군인들의 위훈을 생각하면 가슴이 후더워지고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기

념사진을 찍고 가야지 그대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수만명의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무려 1시간 30분동안이나 기다려주시였다.

그리하여 라선땅에서는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어깨성을 쌓은 군인들이 자기들이 건설한 살림집들을 배경으로 기쁨에 울고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는 세상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숭고한 화폭이 펼쳐졌다.

③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12월 28일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여식에 앞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올해 불리한 어황 및 일기조건속에서도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사계절 바다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림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이룩하고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들어선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우리 당 수산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한 당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올해 동서해전역에서 이룩된 놀라운 전과들은 자신과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인민군대에 내보낸 부모들과 온 나라 가정들에 애국의 열정과 기쁨을 더해주었다고 하시면서 이 기세로 나간다면 가까운 앞날에 인민군대의 모든 군부대들과 온 나라 가정들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꽉 차넘치게 할수 있으며 황금해의 새 력사를 반드시 창조할수 있다는

확신을 굳게 가지게 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 당의 수산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신념으로 간직하고 온넋과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 결사관철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우리 당과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동지들을 한시바삐 만나 고무해주고 새로 자라난 혁신자들의 손도 잡아보며 가슴에 번쩍거리는 훈장과 메달들을 달아주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선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수산전선의 전위대, 선봉대로 내세워 수산부문에서부터 군인생활과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창조된 모범을 불씨로 하여 온 나라에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자는것이 당중앙의 의도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점령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３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직접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참가자들과 함께 당기가 펄펄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4.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변을

1) 농산, 축산, 수산을 3 대축으로

(1) 버섯재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 월 어느날 새로 건설한 평양시버섯공장(당시)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산뜻하고 멋있게 잘 지었다고, 생산건물들과 주변환경이 깨끗하다고, 겉만 보고서도 들려보고싶은 공장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각 도, 시, 군들에 버섯공장을 현대적으로 잘 건설하자고 하였는데 평양시가 당정책관철의 기치를 제일먼저 들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에 맞게 버섯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은 한해에 많은 량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큰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공장이 당의 의도에 맞게 건설되였다고 하시면서 생산과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평양시민들이 실지로 덕을 보는 공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각 도, 시, 군들에서도 이 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우는것과 함께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버섯품종과 기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

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버섯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새해벽두에 인민들을 위해 마련된 희한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1 년 365 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평양시에서 뜻깊은 2015 년의 첫 성과를 마련하였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버섯공장을 건설하면서 과학기술력량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우리의 주체적인 력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을 정확히 집행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정책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단위들을 찾을 때면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업어주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당의 구상대로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를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한 건설자들과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들, 련관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시고 그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비결은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일군들의 정신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좌우명으로 삼고 자신과 함께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오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2)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협동벌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8 월 어느날 농기계전시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시된 여러가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 소농기구들을 보시면서 성능과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당 부문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여러가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 소농기구들을 창안제작한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면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기계들의 가동률과 리용률을 높여야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기계 및 부속품생산기지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의 병기창이라고 하시면서 농기계생산자들이 싸우는 고지에 더 많은 탄약을 보내주자는 구호를 들고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전시생산을 보장한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발휘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농기계생산기지들이 그쯘히 마련되여있고 우리 로동계급에게 여러가지 농기계와 부속품들을 만들어본 경험도 있는 조건에서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생산보장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생산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사회주의협동벌들에 꽉 차넘치게 하자는것이 당중앙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농기계생산과 관련한 문제들을 자신께서 직접 풀어주고 적극 도와주겠으니 내각과 농업성

의 일군들이 농촌기계화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밀고나가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내각과 농업성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해 이악하게 투쟁함으로써 농기계들을 하루빨리 현대화하며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농업전선에서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제낄데 대한 당의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3) 사회수산부문에서 기치를 들도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5 월 어느날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에 찾아온것은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곳 기업소가 사회수산부문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굴지의 수산기지로 장성강화된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가 지난 시기 당의 수산정책관철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가 사회수산부문에서 기치를 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늘 지켜보고계신다는 자각을 안고 수령님들앞에서 자기들의 실적을 총화받는 심정에서 살며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뜨랄선들과 대형가공모선 《삼천리-１》호를 돌아보시면서 경영전략, 기업

전략을 바로세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기업소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과 인민들의 식생활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수산부문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손으로 황금해력사의 대문을 기어이 열자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기본방도는 수산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자구구 깊이 연구학습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산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이 어렵고 방대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능히 할수 있는 일이라고, 수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국가적인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당적, 국가적조치를 취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4)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 월 어느날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평양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메기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한해사이에 공장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어제날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는 새 공장, 볼수록 희한한 멋쟁이공장,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갈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모자이크벽화를 정말 잘 모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환하게 웃으시며 인민들에

게 더 많은 메기를 생산하여 보내주라고 고무격려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늘 뵈오면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결사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메기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던 공장중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고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장군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난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것은 철의 진리이며 모든 승리의 담보라는것을 심장에 쪼아박고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메기생산 및 공장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평양메기공장을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이 될수 있게 현대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메기공장이 메기양어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된것만큼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메기공장과 같은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메기공장을 여러 도들에도 일떠세울뿐만아니라 공장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메기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평양메기공장을 참관하고 따라배우게 하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어느곳을 보아도 흠잡을데가 없고 만점짜리인 평양메기공장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앞날을 락관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것도 얼마든지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요즘은 찾아가는 곳마다에서 자랑스러운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들을 보게 되니 이런 기쁜 일을 보기 위해 일하고있으며 이런 멋에 힘겨워도 혁명을 하고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 이 땅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자랑찬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 속에 평양메기공장에서도 자랑할만 한 기적같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하시면서 생산과 현대화공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해당 부문과 공장, 시공단위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메기공장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겠다는 드높은 열의를 안고 당정책관철에서 온 나라의 앞장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5) 대동강우에 떠있는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1 월 어느날 대동강에 새로 설치한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이 산뜻하고 멋있으며 대동강과 조화를 잘 이룬다고 하시면서 날마다 변모되여가는 평양시의 모습을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는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물보장에 필요한 양수동력설비들이 전혀 필요없으며 많은 로력과 먹이를 절약하면서도 물고기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그물우리양어는 경제적효과성이 대단히 큰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양어추세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세 면이 바다로 되여있고 강과 호수를 많이 끼고있는 우

리 나라에서 이동식그물우리양어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돌아보시면서 양어시설들의 특성과 물고기기르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물고기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할수 있게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서해갑문이 일떠선 결과 대동강이 대인공호수화되였으며 최근에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가 건설되여 무려 10 여개의 인공호수들이 생겨남으로써 민물양어를 할수 있는 유리한 수역들이 많아졌다고 하시면서 강과 호수들에 새끼물고기들을 방류시키는것과 함께 그물우리양어장을 대대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돌아보니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계적인 양어의 나라로 만들려는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평양시가 전국의 앞장에 섰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평양시당위원회의 사업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동식그물우리양어는 인민들에게 안겨줄 물고기문제를 푸는데서 커다란 예비로 된다고 하시면서 각 도, 시, 군들에서도 평양시에서처럼 현대적인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꾸려놓는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요구로 받아들이고 당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에 새로 설치한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은 인민들의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양어장의 종업원들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경험을 축적하여 많은 물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인민들이 실지로 그 덕을 보게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 경공업부문이 용을 쓰며 일떠서게

(1)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 월 어느날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과 체육인들을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을 언제나 잊지 않고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 공장이 일떠선지 몇해밖에 되지 않지만 온 나라에 소문이 나고 공장제품에 대한 인기와 수요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이 만가동, 만부하로 돌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잘하기 위한 드높은 열정을 안고 더 많은 건강음료들과 영양식료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기대들마다에서 여러가지 식료품들이 쏟아지고있는것이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적은 로력과 크지 않은 생산면적을 가지고 많은 량의 식료품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대해 기뻐하시였다.

그리고 식료품의 가지수도 다양하고 포장용기도 자체로 생산하고있으며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제품포장을 문화성있게 하고있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체육부문뿐아니라 나라의 식료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에서 적극 도와주겠으니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도 인민군대의 식료공장들처럼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이 될수 있게 전변시키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문화후생시설들과 온실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습식 및 건식한증칸이 달린 목욕탕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으며 생산건물의 옥상에 건설한 온실이 특색있다고, 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는것이 마음에 든다고, 갖가지 남새를 재배하고있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종업원들이 자기들의 일터를 늘 자랑한다는데 공장에 대한 자랑은 그대로 공장애로 이어지며 그것은 곧 더 높은 생산실적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 같은 식료가공기지들을 수많이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조국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에서 계속 자랑찬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인민들과 체육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를 꾸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길이 빛내이며 나라의 체육과 식료공업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 류원신발공장을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 월 어느날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보시면서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질좋고 맵시있는 신발들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신 장군님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

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곳곳에 일떠선 경공업생산기지들은 큰것으로부터 자그마한것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몸소 씨를 뿌리시고 하나하나 품들여 마련해주신 고귀한 유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놓으신 경공업의 튼튼한 토대와 잠재력을 총폭발시킴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인민소비품이 차례지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생산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속에서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신발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품진렬실에 전시된 아동신발, 봄가을신발, 여름신발, 겨울신발들과 축구화, 롱구화, 륙상화를 비롯한 운동신들을 보시고 공장에서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신발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류원신발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원신발공장에서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신발,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신발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원신발공장을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있어서나 종업원들의 로동조건에 있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일신시키자고 하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하며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원신발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신발생산과 제품질제고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 《매봉산》구두를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 월 어느날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몰라보게 변모되였다고, 생산건물들과 주변환경이 깨끗하다고, 정말 멋있다고, 겉만 보고서도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하시면서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새 세기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너무도 뒤떨어진 공장을 돌아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정말 마음이 개운하다고, 이것이 바로 천지개벽이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원산구두공장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꾸려놓고보니 위대한 장군님께 이렇게 희한하게 개건된 공장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가슴을 허빈다고, 장군님께서 이곳을 돌아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혁소개실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공장이 어떤 발전로정을 걸어왔고 그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생동하면서도 교양적의의가 있게 잘 꾸렸다고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혁을 통한 교양을 5대교양사업과 함께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근로자들이 자기 일터에 깃든 당과 수령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안고 일을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

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공정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개건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생산건물들을 완전히 때벗이하였을뿐아니라 문화후생시설들을 새로 일떠세움으로써 공장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일신시켰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구두공장을 우리 나라 신발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시킨데 맞게 공장에서는 질좋고 맵시있는 구두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특히 질제고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매봉산》상표를 단 공장제품이 소문이 나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개건한 원산구두공장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면서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이 공장을 로동자들의 궁전이라고 부른다는데 그럴만하다고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의 일군들을 참관시켜 당이 바라는 현대화가 어떤것인가를 실물로 보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구두공장을 개건한것은 단순히 이 공장 하나만 현대적으로 꾸리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경공업공장들을 원산구두공장처럼 전변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원산구두공장을 개건한 다음 다시 찾아와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신 사랑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공장의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1 월 어느날 이해에 원산구두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구두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찾아오시였던 잊을수 없는 공장이라고 다시금 되뇌이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번 공장을 돌아볼 때 신발생산에서 선행공정인 도안을 잘하는데 각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도안실을 잘 꾸리고 여러가지 신발형태들을 도안하여 생산에 받아들이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구두의 형태도 다양하고 맵시있을뿐만아니라 가볍다고 하시면서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고 견고성을 보장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도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구두공장에서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 체질과 년령심리적특성은 물론 계절에 따르는 신발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구두공장에 예고없이 찾아왔는데 공장이 쾅쾅 돌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자신에게는 공장안에 차넘치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가 우리 로동계급들이 만든 질좋은 신발들을 받아안고 좋아하는 인민들의 웃음소리로 들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혁신, 계속전진해가고있는 원산구두공장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자는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바라시던 념원이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구두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령도업적단위답게, 경공업부문 현대화의 기치를 남먼저 든 공장답게 생산도 잘하고 꾸리기사업도 잘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투쟁기풍과 일

본새를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구두공장이 우리 나라 신발공업발전을 추동하는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공장의 종업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대해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4) 화장품공업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시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 월 어느날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구내에 건립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사적비와 모자이크벽화를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2003 년 8 월 새로 개건된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줄줄이 쏟아져나오는 화장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며 생산정상화와 제품의 질제고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그마한 화장품 하나도 그것이 우리 인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공장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화장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공장을 인민의 사랑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우리 녀성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아름

답고 고상하면서도 문명하게 할뿐아니라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화장품공장의 생산공정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도와주겠으니 평양화장품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 만점짜리 공장, 우리 나라 화장품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완전히 일신시키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화장품공장은 우리 당이 깊이 관심하는 공장이라고, 올해를 화장품공업발전의 분수령이 되게 하자고 하시면서 공장의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5) 김가공품의 가공방법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7 월 어느날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을 특별히 관심하시였다고 하시면서 김생산과 김가공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공장에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맛좋고 영양가높은 김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줄데 대한 교시를 여러차례나 하시였다고, 그와 관련하여 자신께서 직접 받은 교시만 해도 정말 많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김가공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가공품의 가지수와 질, 가공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

아보시고 공장에서 우리 인민들이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고있는 건강식품인 김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식생활을 하루빨리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대단히 높은것만큼 공장에서는 김가공품의 가지수와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바다가양식은 많은 바다나물과 물고기를 생산할수 있는 효과적이며 실리에 맞는 수산물생산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오염되지 않은 우리 나라 바다에서 양식만 잘해도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문제를 풀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김을 비롯한 바다나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늘 머리를 쓰고 대담하게 작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앞장에서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당 부문과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해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6) 질좋은 위생용품을 더 많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7 월 어느날 락랑위생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생산실태와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락랑위생용품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들과 군인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위생용품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락랑위생용품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위생용품들의 질이 높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 제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영이 좋다는데 이런 보고를 받을 때면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질좋은 위생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는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며 원료,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위생용품생산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위생용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영이 좋을수록 그들이 무엇을 더 요구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과 군인들이 좋아하는 위생용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더 좋은 위생용품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마음써오시였다고 하시면서 락랑위생용품공장은 장군님께서 그처럼 심려하시던 문제를 덜어드리는 공장, 자신께 큰 도움을 주고있는 애국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7) 내놓고 자랑할만 한 평양강냉이가공공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8 월 어느날 새로 건설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평양정

신, 평양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속에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은 모든 생산공정들이 현대적이며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흠잡을데가 없는 멋쟁이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공정조종과 경영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할수 있게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았고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흐름선화하였다고 하시면서 특히 우리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설비들을 창안제작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은 식료공업의 표준화된 본보기공장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원격교육을 받을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실도 잘 꾸려놓았으며 공장안에 실내체육장도 멋들어지게 건설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은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중요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마음먹고 달라붙어 건설한것이 알린다고, 당의 주체적식료공업정책과 건축미학사상이 훌륭히 반영된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건설에서 자기들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친 평양시민들과 공장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일군들, 교원, 연구사들의 위훈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문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지방들에서도 현대적인 강냉이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안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강냉이가공품을 보내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길이 빛내여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8) 흥하는 상점, 사회주의상점으로 되게 하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9 월 어느날 미래과학자거리에 새로 일떠선 창광상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1983 년 11 월에 창립된 창광상점은 지난 수십년간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여왔다고 하시면서 상점이 미래과학자거리와 함께 새롭게 건설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생산한 갖가지 생활필수품들을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상업봉사기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더욱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창광상점이 선 편리성, 선미학성이 철저히 구현된 현대적인 상업봉사기지로 꾸려짐으로써 상점에어려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더 잘 받들어갈수 있게 되였다고하시면서 모든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광상점의 여러층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봉사활동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창광상점의 매장들마다에 우리의 로동계급들이 만든 가지수가 다양하고 질좋은 상품들이 꽉 차있다고, 상품진렬도 잘했다고 하시면서 상점이 환하다고,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광상점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봉사활동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 한복판에 인민들을 위한 상업봉사기지를 일떠세워놓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질좋은 갖가지 상품들을 가득 채워놓고 인민들이 즐겨 찾아와 마음껏 상품들을 사가게 함으로써 흥하는 상점, 사회주의상점으로 되게 하자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새로 일떠선 창광상점이 정말 멋있다고 하면서 언제면 문을 여는가고 궁금해한다는데 미흡한 점이 하나도 없게 운영준비를 더 잘하여 10월 10일을 계기로 개점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광상점이 개점을 하게 되면 많은 인민들이 찾아올것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자주 내려와 당의 인민적시책이 어떻게 집행되고있는가를 알아보고 상점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9) 국산화가 실현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1월 어느날 현대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지난해에 돌아본 공장이 옳은가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일터답게 면모를 완전히 일신한 멋쟁이공장, 우리가 결심하면 못해내는것이 없다는것을 확증해주는 공장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길이 전해갈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모자이크벽화를 정말 잘 모시였다고 하시면서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많이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내주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977 년에 일떠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발전로정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온 나라 아이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하늘같은 사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덕을 길이 전할수 있게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잘 꾸리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생산성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과 생산실태, 제품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통합생산체계가 최상의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지난 시기 다른 단위들을 현대화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까지 최량화, 최적화할수 있는 다차원적인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았는데 자랑할만 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원료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보관, 운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자동화, 무인화하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한 결과 로동자들이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였으며 로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지난 한해동안 영양학적, 위생학적요구를 만족시키는 여러가지 새 제품을 개발하였을뿐만아니라 아이들의 심리에 맞으면서도 구매자들의 편리를 도모할수 있게 상품도안과 포장에서도 많은 개선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식료품의 맛을 가지고 세계와 경쟁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현대화가 정말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한해사이에 방대한 공장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은것은 우리의 로동계급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지혜와 불굴의 정신력,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의 거대한 잠재력이 있었기때문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현대화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것은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놓은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현대화방침에서 중핵을 이루는것이 바로 국산화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은 설비현대화에서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공장, 우리의 주체적력량과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면 얼마든지 당이 바라는 국산화를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준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남을 쳐다보는데 습관된 일부 사람들이 이곳을 돌아보면 수입병이 싹 없어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무조건 우리 식으로 해내려는 립장과 관점을 기둥처럼 세우고 국산화실현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사람들은 업어주고싶다고 하시면서 공장현대화에 적극 기여한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에 현대화의 불바람이 세차게 불어치는 속에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이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되였다고 하시면서 중앙과 지방의 많은 일군들이 이 공장을 돌아보고 따라배우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난관을 헤치며 혁명을 하는것도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이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

면 오늘은 비록 힘들어도 밝고 창창한 래일을 락관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정상화이자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콩우유를 비롯한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공급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 철도현대화의 불길을 지펴주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고 철도현대화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자그마한 철도공장에 불과하던 기업소가 굴지의 차량생산기지로 장성강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1945 년 11 월에 이 공장을 창립해주시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나이이자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나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기업소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철도수송과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전기기관차와 객차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첨단기술이 도입된 새세대전기기관차를 더 많이 만들어내며 최단기간안에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돌아보니 한

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갈마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렬차는 집무실이였고 집이였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과 장군님을 좋은 철도에 편히 모시였더라면 이다지도 가슴이 아프지 않겠다고 절절히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나라의 철도를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며 낮이나 밤이나 렬차에 오르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 심정으로 철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자고, 자신께서 이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 월 어느날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시고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10 월 10 일까지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느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하전동차가 정말 멋있다고 하시면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특성과 현대적미감에 맞게 형태와 색갈을 잘 선정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늘에는 우리가 제작한 비행기들이 날고 지하에서는 우리가 만든 전동차가 달리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지하전동차개발생산을 대단히 중시한것은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들과 애국적인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철리를 수입병에 걸린 일부 사람들에게 천백마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

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나이와 같은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우리 식의 새로운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10 월이 더 빛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고귀한 땀방울로 당과 인민에게 드리는 훌륭한 열매를 마련한 기업소와 련관부문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11 월 19 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개선역을 돌아보시면서 오늘따라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시려고 한평생을 깡그리 다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평양지하철도는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민족의 귀중한 재보, 인민사랑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하전동차를 타시고 개선역, 통일역, 승리역, 봉화역, 영광역구간을 왕복하시며 시운전과정을 자세히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하전동차의 성능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속도도 좋고 제동상태도 나무랄데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하전동차가 미남자처럼 잘 생겼으며 의장품들과 운행정보장치들도 현대감이 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인민들이 리용하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하전동차개발자들처럼 투쟁한다면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를 맞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와 련관부문에서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세계적수준의 지하전동차를 계렬생산하기 위한 투

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평양지하철도에서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들이 달리게 하자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에 참가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와 련관부문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이 깃들어있는 평양지하철도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더 잘 꾸리며 지하철도관리운영의 정보화, 현대화수준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5. 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1) 과학기술의 힘으로

(1) 최상의 문명거리를 안겨주시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 월 어느날 전용기를 타시고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용기안에서 건설장의 전경을 내려다보시면서 당에서 비준해준 거리형성안의 요구대로 건축물들을 들여앉히니 정말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시간을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1 단계에 완공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골조가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은 1970 년대, 1980 년대의 건설전투장을 방불케 한다고, 이곳에서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창조되고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2 단계 건설도 잘해야 1 단계에 건설한 대상들이 빛이 날수 있다고 하시면서 2 단계 건설대상과 규모를 정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중에서 날로 변모되여가는 평양시의 웅장화려한 자태를 보시면서 이런 속도로 나가면 가까운 앞날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혁명의 수도 평양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더욱 훌륭히 일신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미래과학자거리건설현지에 나오시여 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중에서 건설장을 내려다보면서 만족하였는데 현지에서

보는 광경은 더욱 웅장하고 볼만 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건축물들을 자기의 특색,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면서도 과학자거리를 상징할수 있게 독특하게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 1단계 건설을 올해 태양절까지, 2단계 건설은 당창건 70돐까지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인민군대의 건설력량을 더 증강하며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겨울의 추위속에서도 힘찬 전투를 벌리고 있는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을 비행기에서도, 현장에서도 보면서 저렇듯 강하고 충직한 전사들이 있기에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은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최고사령관의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총공격전을 벌림으로써 미래과학자거리 1단계 건설을 올해 태양절전으로 끝낸데 이어 2단계 건설도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완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월 어느날 주체건축의 본보기거리, 로동당시대의 선경거리로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를 바라보시며 볼수록 멋있고 웅장화려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리,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희한한 거리, 문명개화기가 더욱 활짝 꽃펴나는 시대에 수도 평양에 펼쳐진 우리 식의 특색있는 거리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의 모든 건축물마다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그대로 응축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150여개의 봉사망들을 갖춘 옹근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운다는것은 기존 건설공법으로써는 상상도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미래과학자거리를 보니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는 우리 조국이 10년후면 더욱 몰라보게 전변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살림집들의 시공의 질이 최상의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공동살림방, 부모방, 부부방, 자식방, 부엌 등에 고급가구와 비품들까지 그쯘히 갖추어놓으니 교원, 연구사들이 손짐만 들고 오면 살수 있게 되였다고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의 궁궐같은 살림집들에서 우리의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살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믿으려고조차 하지 않을것이라는 일군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이 천사만사인 국사중에 과학기술발전을 어떻게 중시하고있으며 과학의 힘으로 세상에 다시없는 인민의 락원, 강성국가를 건설해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알려면 미래과학자거리에 와보면 될것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력사에 전례없는 비상한 속도로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의 모든 건축물들은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며 앞날에 대한 락관을 안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소중한것을 자기식으로 창조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피끓는 심장으로 일떠세운 주체조선의 긍지높은 창조물, 요소요소마다에 애국심이 뜨겁게 어려있는 고귀한 결정체라고 하시면서 건설에 참가한 부대들과 단위들, 건설자들, 지원자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 준공과 관련한 지시를 주시였다.

(2)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 월 어느날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은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21 세기 주체건축예술의 척도를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건설대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은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각계각층모두가 마음껏 학습할수 있는 배움의 전당이며 온 나라에 최신과학기술을 보급하는 중심기지, 거점이라고 하시면서 건축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 있어서 흠잡을데없이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과학기술전당건설에서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전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수 있게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500 석능력의 려관을 더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전당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운영준비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은 당에서 단단히 마음먹고 추진하고있는 건설대상이라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에게 당중앙의 의도를 다시금 잘 알려주라고,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당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10 년이 아니라 1 년이면 강산이 변하게 하는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기술발전은 강국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사이며 나라의 전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전당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선물인 과학기술전당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현지에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 월 어느날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21 세기 주체적건축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과학기술전당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쑥섬에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이 응축되고 날로 발전하는 우리의 건축예술의 극치, 상징으로 되는 과학기술전당이 건설됨으로써 이곳이 과학의 섬으로 전변되였다고 하시면서 쑥섬의 옛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수 없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으로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이 독특하고 새롭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과학기술보급거점이라는것이 알린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은 어느모로 보나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건축물,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규모가 방대한 건설을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수 있은것은 주체조선의 필승의 보검인 군민대단결이 있었기때문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을 장시간에 걸쳐 돌아보면서 그저 보기만 하자고 해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방대한 건설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완공하느라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얼마나 수고하였으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창조적열정과 불굴의 정신력, 불타는 애국심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땅에서는 10 년이 아니라 1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새로운 시대어로 태여났는데 과학기술전당을 바라보느라니 우리 조국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전변되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갈마든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결심이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 한 사회주의조선은 강성번영의 령마루에 반드시 올라서게 될것이라는 확신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전당을 훌륭히 건설함으로써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훌륭한 선물을 마련한 지휘관들, 일군들, 건설자들, 지원자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로력이 남아돌아가고 자재가 많아서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운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과학의 섬인 쑥섬을 돌아보면 과학기술발전을 강국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중대사로, 나라의 전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고 일관하게 밀고나가는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잘 알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땅우에 우리 인민의 모든 꿈이 실현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자면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전당운영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3) 온실남새연구와 생산에서 시범단위, 모범단위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7 월 어느날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온실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있다고, 온실바다를 보는것만 같다고, 규모가 대단히 클뿐아니라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자랑할만 한 기지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꾸려주신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곳곳마다에는 장군님의 체취가 뜨겁게 어려있다고 하시면서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온실남새연구 및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자기들의 일터에 어려있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연구소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온실마다에서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는 갖가지 남새를 보니 기분이 좋다고, 침체상태에 빠지지 않고 약동하고있는 연구소를 돌아보니 기쁘다고 하시면서 온실남새농사를 잘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게 하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품을 들여 온실을 꾸려놓았다고 해도 관리운영을 잘하지 못하면 덕을 보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온실남새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야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갖가지 남새를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유족한 식생활의 향유자로 되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겠으니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배심을 가지고 온실남새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온실남새농사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수가 되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4)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건축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5 월 어느날 새로 건설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형식이 새롭고 특색있는 멋쟁이건축물이 일떠섰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정말 잘 지었다고 하시면서 우주정복의 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건축물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주개발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이 땅에서 인공지구위성이 날아오르는 5 천년 민족사의 특대사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하시면서 백옥같은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우리 조국을 우주강국으로 더욱 빛내임으로써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실용위성제작과 발사, 관제를 원만히 하자면 모든 시설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과학화, 현대화하는것과 함께 우주개발자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날 총대가 없어 망국노의 운명을 겪어야 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위성을 만들고 쏘아올리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라섰

다고 하시면서 평화적인 우주개발은 우리 당과 인민이 선택한 길, 조선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적대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개발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중대사인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2) 행복의 노래소리 끝없이 울려퍼지도록

(1) 새해의 첫걸음으로 찾으신 평양육아원, 애육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1월 1일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볼을 다정히 쓸어주시면서 새해에 복 많이 받고 몸도 마음도 튼튼히 무럭무럭 자라나라고 하시며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지난해 10월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면서 설날에 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아이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원아들이 설을 어떻게 쇠고있는가를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식탁마다에 맛있고 영양가높은 특색있는 음식들을 풍성하게 차려놓은것을 보니 원아들을 위해 설준비를 성의껏 한것이 알린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 들리신 곳마다에서는 원아들이 저저마다 달려와 그이의 품을 파고들며 《아버지원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동동 매달렸다.

그이께서는 아이들이 하나같이 보동보동하고 훤해졌으며 씩씩해졌다고, 모두 똘똘하다고, 부모의 사랑을 제일 그리워하는 원아들이 밝게 웃으며 즐겁게 설을 쇠는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에게 이런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설을 함께 쇠니 얼마나 좋은가고, 힘들어도 보람있는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이애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에 대하여 더 굳게 확신하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모든 시설물들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응축되여있다고 하시면서 육아원과 애육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원아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는데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애육원 원아들의 설맞이공연을 보신후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한점의 그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우리가 혁명을 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릴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일군들과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이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원아들을 훌륭히 키워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 동해기슭에 솟아난 원아들의 궁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 월 어느날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이 한축선상에 일떠서고있는데 원아들을 위한 보육 및 교육시설을 이렇게 건설

하면 그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탁아소로부터 중학교 전 과정을 마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원아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대상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에서 원아들을 위한 보육 및 교육시설표준설계를 각 도들에 내려보냈다고 하시면서 해당 지역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특성과 얼굴이 살아나게, 주변환경과 수용능력에 맞게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에서 건설력량을 더 투입하여 당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건설은 태양절까지,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은 전승절까지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축물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건설함으로써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4월 어느날 완공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건물외부만 보아도 멋있다고, 두달전에 이곳을 돌아볼 때는 먼지가 풀썩이고 골조만 서있었는데 벌써 완공을 앞두었다고, 이 일대가 천지개벽되였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행복의 선경들이 련이어 펼쳐지는 사회주의락원에 멋쟁이집이 새로 일떠섬으로써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릴수 있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모든 방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시공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른것만큼 보육원, 교양원대렬을 잘 꾸리고 교구비품과 집기류, 운영물자 등을 충분히 보장해주는것을 비롯하여 운영준비를 착실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또 하나 일떠서게 되여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원산육아원, 애육원과 같은 아이들의 궁전은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위해주며 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일떠설수 있다고, 여기에 바로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있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남은 공사를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도록 완전무결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제아동절인 6월 1일에 원산육아원, 애육원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일처럼 중대한 사업은 없다시며 이 땅우에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전설을 끝없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속에서 부모없는 어린이들의 희한한 궁전으로 일떠선 원산육아원, 애육원이 준공의 날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국제아동절인 6월 1일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정면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바라보시면서 밝고 정중하게 잘 모시였다고, 원아들이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집들이를 하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아들이 살게 될 궁궐같은 새 집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아하시였겠는가고 하시면서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릴수 있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준공식을 진행할 때 준공테프를 아이들이 끊게 하자고, 그래야 어른이 되여서도 자그마한 손으로 제 집의 테프를 끊고 들어서던 날을 일생토록 잊지 않을것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과 해당 부문 일군들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원산육아원, 애육원건설공사를 완전무결하게 마무리하였을뿐아니라 운영준비를 빈틈없이 해놓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을 잘 먹이고 최상의 생활환경을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운영을 잘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원아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니 얼마나 좋은가고, 그들이 당과 조국을 아버지, 어머니로 따르며 밝고 명랑하게 커서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이 될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하루하루를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고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이 완공됨으로써 조국의 귀중한 재부가 또 하나 늘었으며 강원땅에 경사가 났다고 하시면서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3)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만경대학생소년궁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1 월 어느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아이들이 안겨사는 우리 당의 품을 형상한 궁전의 외부를 화강석과 고급건재들을 가지고 장식하니 궁전자태가 품위있으면서도 정말 보기 좋다고 하시면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다른 나라에서는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건축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과시하는 기념비적건축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 혁명관이 담겨져있는 뜻깊은 친필명제를 밝고 정중히 잘 모시였다고 하시면서 주옥같은 친필의 글발을 한자한자 읽어보느라면 우리 수령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였는가를 뜨겁게 절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보여주는 사적물과 자료들은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면서 궁전의 일군들과 교원들, 학생소년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고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가 철저히 반영되였으며 당의 후대관이 그대로 비낀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개건은 참으로 방대하고 어려운 공사였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업이고 오늘에 울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최후승리의 함성으로 이어지는것이기에 당에서는 천만금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훌륭히 개건된것만큼 준공식을 세상이 들썩하게 성대히 진행하자고 하시면서 준공과 관련한

지시를 주시였다.

3) 문명국의 본보기, 기준을 창조하여

(1) 문명개화된 농촌도시-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 월 어느날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천지개벽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지개벽된 농장을 보니 한폭의 그림같다고, 농장이 21 세기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되였다고, 농장원들이 너무 좋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데 자신께서도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시기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끝없는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믿음직한 남새전문생산기지로 장성강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수도시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남새생산과 농장관리운영정형도 자세히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모든 면에서 농촌문화혁명의 본보기, 기준으로 전변된

것만큼 남새비배관리와 생산에서도 전국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농장관리운영과 경영활동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누구나 이곳을 찾게 되면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국가의 휘황한 미래와 사회주의문명국의 높이를 보게 될것이라고, 작가들이 이 농장의 모습을 보면 좋은 글을 폭포처럼 쏟아낼것이라고 하시면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곳이라고 거듭거듭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요구대로 장천지구를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멋쟁이농장도시로 전변시키는데 적극 기여한 농장원들과 평양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2) 평양국제비행장을 나라의 얼굴, 평양의 관문답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4 월 어느날 완공단계에 이른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건물외벽에 용감하고 대담한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백호를 형상하니 현대적인 건축물이지만 민족성이 살아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항공역사라는것이 알린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 항공역사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른것만큼 내부마감시공을 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에서 정해진 기일을 지키

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안고 2 항공역사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관문답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 문명국의 척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완공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들어 결사관철하고야마는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하여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가 현대적인 건축물로 훌륭히 완공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 월 어느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 문명국의 척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훌륭히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항공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현대적미감과 민족적특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잘 시공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축에서 생명인 주체성,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면서도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항공역사를 잘 건설했다고, 우리의 얼굴, 우리의 멋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훌륭히 완공한데 맞게 관리운영과 봉사활동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7 월 1 일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고 항공봉사영업을 시작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건설에서 발휘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더욱 고조시켜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움으로써 10 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3) 년로자들의 보금자리-평양양로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3 월 어느날 평양시양로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양로원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건설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준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양로원의 자태가 완연히 드러났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친어버이사랑속에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이 채택되고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년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돌봐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양로원을 잘 꾸리는것은 우리 당의 년로자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양로원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시양로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우자면 늙은이들의 체질적 및 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생활조직과 정서생활, 몸단련 등을 원만히 할수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라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강조하고있는 문제이라고 하시면서 평양시양로원의 외부 및 내부형성을 민족성이 살아나게, 민족의 향취가 짙게 풍기게 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양로원운영에 필요한 가구와 집기류는 물론 관리성원들이 착용할 단체복을 잘 만들어주

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양로원을 보양생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표준으로 꾸림으로써 지방들에서도 이곳을 본보기로 양로원들을 잘 건설하게 하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국의 모든 양로원들을 보양생들이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보금자리로 잘 꾸림으로써 그들이 당과 국가, 전사회적인 관심과 보살핌속에 혁명의 선배로, 웃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인생의 로년기에도 값높은 삶을 꽃피워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평양양로원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공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8 월초 새로 건설한 평양양로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합각지붕을 떠이고 조선식건축물로 솟아오른 평양양로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양로원을 민족성이 살아나게, 민족의 향취가 짙게 풍기게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볼수록 멋있다고, 모든 요소요소를 보양생들의 신체적,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양로원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명당자리에 평양육아원, 애육원과 함께 평양양로원까지 일떠섬으로써 이 지구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이 집대성된 곳으로 전변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양로원이 건설됨으로써 언제나 인민들을 위한 시책을 국가적인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릴수 있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사업의 출발점으로 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만 평양양로원과 같은 년로자들을 위한 훌륭한 보금자리가 일떠설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인민적시책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조차 낼수 없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양로원의 보양생들이 새 집에 오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새로 건설된 양로원에 오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데 준공식을 진행하고 하루빨리 이사시키라고 지시하시였다.

(4) 《무지개》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9 월 어느날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유보도에 서시여 불야경을 이룬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바라보시며 칠색령롱한 무지개같다고, 대동강이 더욱 밝아졌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조국의 수도 평양은 낮에 보아도, 밤에 보아도 정말 황홀하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동강에 현대적인 봉사선을 띄워놓고 인민들이 리용하게 하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이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의 설계와 내외부시공이 최상의 수준에서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요소요소가 흠잡을데가 없고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경지에서 실현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지개》호는 인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봉사시설인 동시에 특색있는 문화생활공간이라고 하시면서 봉사활동을 잘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종합봉사선의 수용능력이 대단한것만큼 원자재보장대책

을 잘 세워야 정상운영을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며 누구나 즐겨 찾는 인민의 봉사기지로 되게 하자면 봉사자들이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봉사활동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현대적인 봉사시설이 또 하나 생겼다고, 대동강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는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봉사기지로 흥성일것이라고, 배를 타고 대동강을 유람하면서 웃고 떠들 인민들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가셔진다고, 이렇게 인민들에게 안겨줄 재부를 한가지, 한가지 마련해놓을 때가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일이라고 하시면서 10월 10일전에 영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시였다.

4) 체육강국건설의 전망을 열어나가도록

(1)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에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3월 어느날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체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가까운 몇해안에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결심이며 확고한 의지이라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

의 주체적인 체육강국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체육분야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슬기와 용맹을 만방에 높이 떨쳐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한 서한에서 체육강국건설을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중시하는 하나의 전선으로 규정해주시고 빠른 시일안에 나라의 체육기술을 세계적인 높이에 올려세우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며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한의 마지막부분에서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고 값높은 생의 자욱을 뚜렷이 아로새긴 체육인들은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체육영웅, 참된 애국자로 주체의 체육강국건설사에 빛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체육인들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당의 믿음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은 우리의 모든 체육인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한 당과 조국의 영예로운 체육전사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새겨주었으며 나라의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 불멸의 대강이였다.

(2) 빨찌산녀전사들이 받아안은 특전

중국의 무한에서 진행된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눈부신 황금의 9개 꼴을 터뜨리며 맞다든 강팀들

인 일본팀, 중국팀, 남조선팀을 여지없이 눌러버리고 련전련승의 체육신화를 창조하여 또다시 영예의 우승컵을 거머쥔 조선의 장한 딸들이 10일 비행기로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비행장에서 조선의 장한 딸들을 직접 맞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영예의 금메달을 어머니조국에 안고 온 우리의 장한 녀자축구선수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열렬히 축하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불굴의 정신력과 우리 당이 제시한 공격전법으로 싸워 이번 경기대회에서 주체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한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전체 군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주시였다.